

나눔터

1995. 12

제 17 호

계간/나눔터
발행처/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편집/최영애
편집·디자인 / 미추 디자인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기금마련공연 「열린마음, 열린세상」을 마치고

차례

이런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3
여기는 상담실	4
특집 제4차 세계여성대회	6
기획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8
몸이야기	10
뒷이야기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를 만들고	11
바로압시다	12
나눔터 애깃글	13
성문화 읽기	14
소개합니다 / 알림판	15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제4차 세계여성대회 참여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북경에서 세계여성대회가 열렸다. 전세계 189개국 13000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세계여성대회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성적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상담소에서는 최영애 소장을 비롯한 상근자와 자원활동가 7명이 참가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세계 여성과 공유하고, NGO포럼에서 서울대 조교성희롱사건에 대한 1,000여명의 지지서명을 받는 활동들을 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시사회 열려

6개월에 걸쳐 준비해온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시사회가 인켈 아트홀에서 9월 25일에 열렸다. 이 비디오 시사회에는 1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국내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문제를 다룬 시사회인 만큼 직장내 성희롱의 실상, 직장내 성차별 구조를 밝히고 나아가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성희롱대책 시민연대 발족식 및 거리 캠페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에 항의하는 각계 각층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성희롱 대책 시민연대」가 9월 29일 발족하고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거리 캠페인이 있었다. 본 상담소 이외에 87개 여성·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희롱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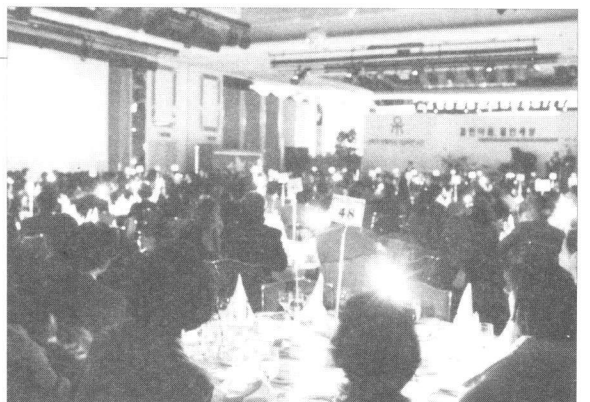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식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열림터가 개설 1주년을 맞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에서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열림터 운영위원들이 열림터의 필요성, 운영방식, 활동현황과 사례발표를 했고 아울러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심리치료등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말씀과 함께 외국 해당기관의 실태와 현황도 소개되었다. 본 기념세미나에는 약 120명정도가 참석하여 우리나라 근친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열림터 운영과정상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폭력 피해여성 기금마련공연 「열린 마음, 열린 세상」 열려

본 상담소는 11월 20일 하오7시부터 9시까지 서울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기금마련공연을 개최하였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쉼 곳인 열림터의 원활한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날 공연은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이라는 부제 속에 성폭력 문제에 관심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공연은 오숙희, 서기철의 사회로 상담소의 역사와 열림터의 활동사항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상영, 김지숙씨의 모노드라마 「어둠 속의 절규」, 장팔순의 통키타, 신관웅밴드와 하모니를 이룬 임희숙, 정훈희, 김준의 재즈 페스티벌, 이선희의 노래 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른 「만남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이 행사는 「성폭력상담소 특별후원회」가 주관하였는데 특별후원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할 예정이다.



멋진 신세대, 나눔이와 지킴이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좀 젊은이를 일컬어 신세대라고 한다. 이 용어는 단순히 연령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기 보다 기존의 행위 양식과는 대비되는 사고방식과 행위유형을 지닌 계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신세대 진단」등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들은 기성세대가 가정이나 사회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있는 것에 반해, 신세대는 자신의 정체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중시하는 개성파이며 누구앞이라고 말을 삼가지도 않으며, 좀체 주눅들지도 않는 소신파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신세대의 개성과 자기 주장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신세대를 자기 본위적 사고의 개인주의자들로 그려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된 행동이나 불손해 보이는 태도를 「신세대라서 그런가봐」라는 식으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측면이 있다.

사실 나 자신도 내가 몸담고 있는 상담소에서 신세대 자원활동가 나눔이와 지킴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런 수준 정도의 신세대 이해에 머물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신세대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일해 보면서 신세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상담소에는 PC통신, 자료정리, 번역, 컴퓨터, 신문스크랩, 우체국 등의 사무업무를 돕는 20여명의 나눔이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위기센터에서는 위기상담 시 보조상담을 하는 80여명의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지킴이의 경우, 돈 한푼 받지 않는 자원활동인줄 알면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킴이 모집에 남녀 대학생 100여명씩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학기 중 바쁜 틈을 내어 3주에 걸친 8회 강의를 이수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손 끝에 물한방울 묻히지 않았을 것 같은 나눔이들이 설겅이, 청소도 마다않는 태도에서 이들 신세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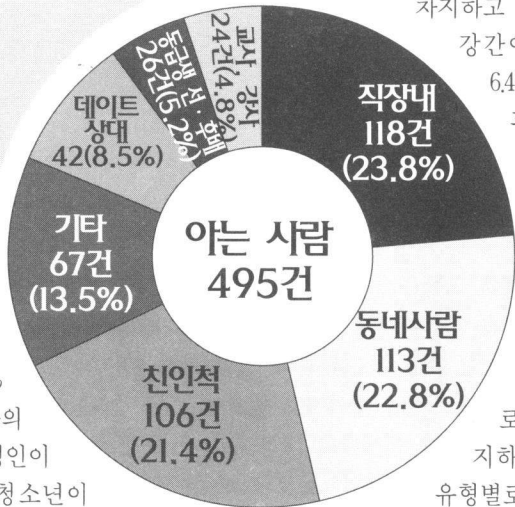
이들 나눔이와 지킴이가 보여주는 진지함과 성실성이 그들의 개인적 요소일 수도 있으나, 신세대의 특성과 많은 부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과 소신을 우선시 하는 신세대의 특성이 책임감 있는 적극적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기성세대처럼 어영부영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이 아닌 뚜렷한 자기의 소신에 의해 선택한 활동인만큼 자원 활동에서도 이들의 태도는 매우 주체적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하는 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확신도 확고하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들 신세대에 대한 탈사회적, 개인주의적 신세대 상을 바로잡아 나눔이와 지킴이같은 신세대를 보다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될때 우리사회는 보다 빨리 인간다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미지란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 힘들 뿐 아니라, 고정관념을 만들어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양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세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신세대 상을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 나눔이와 지킴이는 훌륭한 모델이 되리라 생각한다.

95년 하반기 상담활동

일반상담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551회에 걸쳐 94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772건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였다. <표1>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51.4%, 14세부터 19세의 청소년이 24.1%,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2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이 불분명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7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성폭력이 84건, 10.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유아성추행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 동네사람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들이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완강히 부인하면 피해자인 아이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495건으로 64%를 차지하며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는 사람 중에는 직장상사·동료, 동네사람, 친인척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피해 후 신고나 고소를 한 사례는 전체의 16.3%로 나타나고 있다. (재상담을 하면서 고소한 25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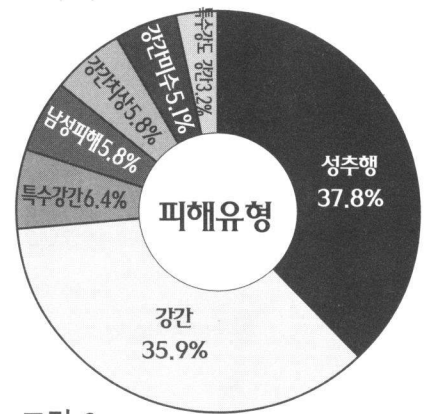
위기상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접수된 위기상담은 156건이다. 분기별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의 기간에 접수된 상담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성추행이 59건으로 37.8%, 강간이 56건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강간이 10건으로 6.4%, 강간치상과 남성피해가 각 9건으로 5.8%, 강간미수가 8건으로 5.1%, 특수강도강간이 5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성추행의 경우에는 2/4분기에 비해 3/4분기에는 20여건이 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에 피해자의 연령은 <그림 3>에서와 같이 20세 이상의 성인이 43.6%이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6.4%로 여전히 성인보다는 미성년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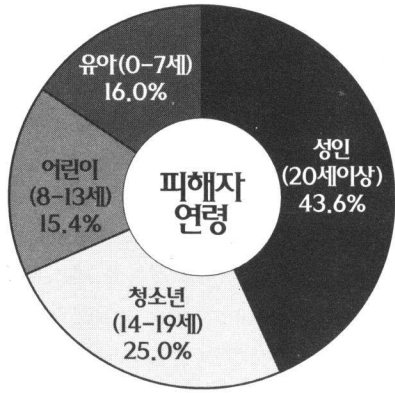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표 1> 상담분류표 (1995. 1 ~ 199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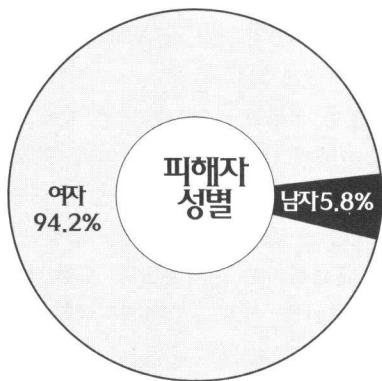
유형	가해자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력 415 (53.8)	일반 강간 282 (36.6)	친족 아버지, 오빠	3	28	16	2	-	49(6.3)	5
		친, 인척	12	6	6	1	-	25(3.2)	3
		동네사람	9	7	11	3	-	30(3.9)	9
		데이트 상대	30	6	-	-	-	36(4.7)	1
		직장상사, 동료	58	9	-	-	-	67(8.7)	9
		교사, 강사	4	7	-	1	-	12(1.6)	-
		동급생, 선후배	6	10	-	-	-	17(2.1)	2
		기타	31	11	5	-	-	47(6.1)	10
		모르는 사람	36	33	18	2	-	89(11.5)	13
		미상	9	3	1	-	-	13(1.7)	-
	윤간	16	14	1	-	-	31(4.1)	6	
	성추행 213 (27.6)	친족 아버지, 오빠	1	8	2	3	-	14(1.8)	-
		친, 인척	5	3	4	6	-	18(2.3)	-
		동네사람	16	5	16	46	-	83(10.8)	15
		데이트 상대	6	-	-	-	-	6(0.7)	1
직장상사, 동료		48	3	-	-	-	51(6.6)	7	
교사, 강사		4	3	3	2	-	12(1.6)	1	
동급생, 선후배		6	2	-	1	-	9(1.2)	-	
기타		15	1	1	2	1	20(2.6)	4	
모르는 사람		16	1	10	13	-	40(5.2)	7	
미상		-	-	1	1	-	2(0.3)	1	
강간미수(3.1)	16	5	3	-	-	24(3.1)	6		
인어추행(4.8)	36	1	-	-	-	37(4.8)	1		
남성피해 41(5.3)	14	21	5	1	-	41(5.3)	-		
계		397(51.4)	186(24.1)	104(13.5)	84(10.9)	1(0.1)	772	101(14.2)	
기타	성문제, 순결	34	6	1	2	1	44	1	
	인신매매	1	1	-	-	-	2	1	
	아내구타	8	-	-	-	-	8	-	
	혼인빙자	6	-	-	-	-	6	-	
	장난전화	13	7	-	-	-	20	-	
	기타	79	7	4	-	1	91	3	
계		141	21	5	2	2	171	5	
재상담	강간	247	68	42	5	-	362	18	
	성추행	118	10	47	43	-	218	7	
	남성피해	1	5	-	-	-	6	-	
	기타	16	5	1	-	-	22	-	
계		382	88	90	48	-	608	25	
총계		920	295	199	134	3	1551	131(17.0)	



<그림 3>

나타났다.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은 25.0%, 13세 이하의 어린이 피해자는 31.4%로 여전히 어린이 성폭행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4.2%, 남성이 5.8%로 나타났다.<그림 4> 그러나 남성피해의 경우는 대부분 어린이 피해자가 성인 남성에게 의해 피해를 입었던 상담이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 피해가 일반상담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보다 빠른 시간내에 즉각



<그림 4>

상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센터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후속처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산부인과 연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내담 건수의 39.7%가 산부인과에 연계되었으며 이는 고소에 대한 준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신 방지와 치료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찰연계는 6.4%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분기와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센터에서 연계하기 이전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전화오는 상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요법률 상담」이 진행되면서 경찰로 연계되기 이전에 변호사 면담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7일 위기센터에서는 2년여 동

안의 위기상담과 위촉의와의 연계에 대한 평가시간을 가졌다. 9명의 위촉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는 이전의 증거채취 검사목록을 새로이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진단서 발급시 발급비용의 문제도 위촉의의 경우는 통일해서 일정금액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 연 2회의 모임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열린터

열린터에서는 열린터 운영위원과 상담원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13명이 참여한 이번 집단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집단 내의 역동성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 반응을 관찰하는데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며 선과 악,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의 틀을 벗는 의식화 과정이다.

집단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은 진행자가 각각의 주제를 주면 각 구성원이 자신의 감정

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경청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특히 각 구성원의 반응마다 진행자의 피드백이 주어지고 상대방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의 동질성을 느낌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감정적 지원을 주고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열린터 집단상담 워크숍에서는 자신을 가장 간단하게 소개하기, 남녀의 차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 자신의 성장시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 전날의 소감과 현재의 느낌 말하기,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 말하기, 타인을 통해서 본 「나의 강점」말해주기, 진행자의 피드백 등이 있었다.

특히 「나의 강점」말해주기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강점을 되새기며 상대의 지지, 배려, 관심을 자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 타인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 하면서 당사자 뿐만아니라 칭찬해주는 사람도 자신이 정화됨을 느낄 수 있어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진행자의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시간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성원 전체가 뿌듯한 일체감과 결속감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집단상담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토요법률 상담

내담자에게 법적 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알려져 효율적인 법적진행을 돕기위해 개설했던 「토요법률상담」이 활성화되고 있다.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토요법률상담」에 의뢰한 상담은 총 188건(상담횟수 217회)이었고 이 중 성폭행이 99건, 성추행 81건, 기타 8건이었다.

총건수 중에서 내담자가 변호사와 직접 면담한 사건은 53건으로, 강간 24건(친족강간 3, 강간 6, 준강간 1(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직장내강간 4, 강간치상 7, 강도강간 1, 윤간 2), 성추행 28건(어린이·청소년성추행 8, 강간미수 3, 직장내성추행 9, 강제추행 3, 언어추행 2, 학내성희롱 2, 남아추행 1), 기타 1건(윤락여성)이었다.

「토요법률상담」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기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피해상황을 들어주고 문제해결에 힘써준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들 한다. 면담신청을 하고 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원인은 고소를 포기하거나, 합의, 신분노출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면접상담으로의 적극 권유가 필요하다.

또한 「토요법률상담」은 상담원들에게도 내담자가 법적 해결을 원할 경우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상담방식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점을 변호사를 직접 만나 충분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 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왔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20세기 말 최대 여성들의 잔치인 세계여성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전세계 1백89개 정부 대표들은 모든 인권의 차원에서 세계 모든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2개 관심분야별 행동강령이 채택됐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 규제조항과 관련, 여성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게 될 행동강령을 알아본다.

「지구상에서 8초마다 한명이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6분마다 한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1985년 나이로비 여성회의(제3차) 이후 10년간 각국의 여성발전성과를 평가한 UN보고서의 내용이다. 전세계 여성들의 현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의 인권 문제가 이번 북경여성회의에서 왜 그토록 열띤 논의로 부각됐는지 짐작케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문제는 끊임없이 여성들이 외쳐오던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4차 회의 때야 비로소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보다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그 뒷받침이 되어준 것은 여성단체들의 피나는 노력과 활동이었다.

정부간회의(GO)에 앞서 진행된 비정부기구(NGO)포럼에서는 10년전 나이로비회의에서 채택된 여성발전전략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2천년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마련에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각적인 목소리들이 총결집 되었

다. 특히 NGO들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에 관한 문제. 이는 행동강령에도 반영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전쟁중 성폭력 범죄자 처벌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성폭력 범주의 구체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한국내 여성문제와 관련, 이번 NGO포럼에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역점을 두었던 부분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우선 분야별 행동강령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쟁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처벌조항이다. 전쟁 및 갈등상황 중 여성간을 비롯하여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명시한 것이다. 여태까지 전쟁중 집단간행위는 21세기를 앞둔 오늘날까지도 전쟁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보스니아 등에서는 아직도 군대에 의한 성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여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성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북경여성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성에 근거한 모든 폭력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고 협박·강제하고 자유를 임의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인권」 분야에서는 성희롱을 비롯, 종교적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가정폭력, 성노예화, 성적 착취, 국제적 인신매매, 강제적 매춘 등을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희롱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범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성희롱도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엔 문서에 정식으로 예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판결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은 우조교가 당한 성희롱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

소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미하게 여겨져 오던 성희롱도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의 인권을 해치는 성폭력이 된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성희롱을 처벌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행동강령으로 명시된 만큼 한국 사회에서도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과 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구호를 적극 실현한 것이기도 했다. 행동강령에도 명시되었듯이 「여성시각을 주요관점으로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바탕이 된다.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성적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이 강요나 차별이나 폭력에 의하지 않고 성생활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낙태권, 자녀사이의 터울 결정권, 자녀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여성의 인권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는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으며 성생활 및 출산과 관련된 남녀평등은 상호존중과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행위 및 결과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의 이러한 내용속에는 성(性)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풀어나가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성폭력 문제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성희롱을

“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의 문제가 결코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비롯하여 전쟁중의 성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여성폭력 철폐와 인권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의 조치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 성폭력과 여성인권 관련법의 정비와 새로운 법규의 제정 및 집행을 들 수 있다.(제 125항) 행동강령에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여성시각을 주요 관점으로 채택하는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시각이 없는 법률이나 사법부, 법운용상의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재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찰, 검찰, 재판부,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 여성폭력에 관련된 국제적 인권규범과 규약들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제126항)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법률적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제 126항)

- 모든 교육기관과 직장 및 여타 장소에서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제 127항)

-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특별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유엔에서 발표된 「여성차별철폐조약」이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가족법의 개정 등 제도 변화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의 문제가 결코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번져가는 「세계화」니 「지구촌화」니 하는 말들이 결코 가볍게 나온 용어는 아니다. 여성운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세계화라는 이러한 추세는 여성문제의 공유와 연대활동의 필연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내 주요 문제였던 성희롱과 위안부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고 문제의 공유를 통해 행동강령을 이끌어 내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내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같은 세계여성운동의 흐름속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2천년대 진정한 여성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수지 기자

내일을 여는 열림터

지난 10월 24일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
동의장에서 본 상담소의 성폭력 피해
자 보호시설인 열림터 개설 1주년 기
념 세미나가 있었다. 『내일을 여는 열림터』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최영애 소
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활동현황, 사례, 열림
터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운영실태,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과 접근방
법 등을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깊
은 자리였다.

1. 활동현황

1) 내담자 수와 피해유형

열림터는 94년 9월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이용한 내담자가 12명이고 거주하고 있는
내담자가 8명으로 총 내담자 수는 20명이
다. 이들 내담자 중에는 직접 성폭력 피해
를 입은 피해자가 16명이며 피해자와 동반

해서 온 가족이 4명이다. 피해자의 연령층
은 대부분 15세 이하의 아동들로서, 이는
가해자의 권위에 눌려 힘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근친성폭력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
는 것이다. 피해유형은 대부분이 친부에 의
한 성폭력 피해자이고 그 외 2명이 데이트
강간피해자들이다. 이처럼 열림터 내담자는
주로 근친강간이나 데이트 강간과 같이 아
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한
다.

2) 내담자 지원 현황

열림터에 온 내담자들은 각자의 피해상
황에 맞는 상담과 의료 및 법적인 지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상담이다. 상담
의 방식은 주로 상담원이 일대일로 만나 내
담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발산하도록 돕
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산부인과, 정신
과 진료와 치료가 요구된다. 산부인과와 정
신과에 연계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
단서를 발급받고, 필요시에는 상담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일정한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
다. 내담자들 중에는 열림터에 오기 전에
이미 고소한 경우와 열림터 입소 후 고소한
경우가 있다. 피해자들 중에서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가 7건이 있었는데 경찰연계와 피
해자 진술시 동석하거나 검찰의 진술요청
이 있을 때는 상담소에서 동행하였다. 고소
한 7건 중에 현재 2건은 수사 중에 있으며
5건은 이미 재판에 회부되었다. 기소된 5건
중에 3건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1
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며 1건은 항소심
에서 가해자가 무죄로 선고되어 오히려 피
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이다.

3) 거주기간과 퇴소 이후

열림터 이용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거주기간은 내담자들이 심리적, 정
서적인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이며 더이상 폭력의 위협을 받지 않
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물
색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연관이 있다. 열림
터에서는 내담자들이 퇴소 후에도 안전하
게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법
적인 절차를 밟도록 도와주고 친족을 만나
내담자들의 교육과 양육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열림터에서 퇴소한다는 것은 무엇보

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안전한 거주지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2 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운영실태

1) 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

열림터 내담자들을 보면 10대 청소년이 현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16명의 피해자 중 14명이 근친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대부분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가출하여 어린 내담자 스스로 집안 일과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자신이 뿌리치지 못하여, 또는 자신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자책감으로 돌려지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적개심, 불신, 냉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인에 따라 성에 대한 수치감, 부정적 인식, 순결감 상실의 정도는 달랐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더럽고 수치스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었다. 이 외에도 우울감, 무기력, 자신감 상실, 낮은 자존감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열림터 입소 직후에 보였던 이러한 불안감, 두려움 등은 열림터 생활을 하면서 많이 해소되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끔찍한 횡포에서 벗어나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유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버림받고 소외되었다고 좌절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오다가 여러 사람들의 조건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고 느끼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열림터에서의 생활은 내담자끼리 자매애를 키우는 훌륭한 경험이 되었다. 가해자에게 분노하되 정당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내담자들은 열림터를 나가서의 건강한 생활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2) 열림터의 운영실태

내담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열림터에서는 학교의 결석처리 및 성적 처리건에 대한 학교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전학할 학교를 알아보고 전학 허가협조 요청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하여 전학서류에 관한 보호자 서류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나 모든 서류와 절차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가 친권행사를 요구할 때 법적 보호조치가 없다. 따라서 전학시 필요한 보호자 관련서류, 전출입시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련하여 보호시설에 재량권을 주는 법적 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열림터가 알려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의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열림터는 되도록이면 외부 노출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입소한 내담자들은 당분간 학교 생활, 교우관계,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하거나 긴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거주시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 만약 열림터가 독립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노출에 대한 염려와 그로 인한 문제는 감소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연령층, 거주기간의 불규칙함, 직업의 다양함 등으로 집단상담의 어려움이 따르고, 현재 소수의 실무담당자와

자원활동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더 많은 전문적 인력지원의 시급한 요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열림터 거주를 의뢰해 오는 피해자들은 많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열림터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들만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열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일시적 피난처의 기능 뿐 아니라 내담자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 양육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진상 기자

▼ 열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꽃 시장을 견학하고 있는 내담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 성지식

현대인들에게 이제 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상생활과 펠레야 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괴하게 과장된 성관계에 대한 환상, 왜곡된 쾌감을 강조하는 은밀한 속삭임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조장되는 성에 대한 쾌락과 환상은, 성이라는 것이 직접 자신의 몸에 직결되는 여성의 시각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곁핍기식의 성 인식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가 절실한 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몇가지 지나치기 쉬운,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막상 실제상황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성지식에 대해 다뤄보겠다.

1. 청결한 성기유지를 위한 뒷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상적인 여성의 질은 약산성을 띠고 있다. 여러가지 경로(불결한 성교, 소변방출의 인위적인 참기...)를 통해 질에 침투한 병균들이 질내에서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락트산 간균에 의해 약산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질의 산성도가 변하여 알칼리성이 된다면 여러 인체에 유해한 병균들이 쉽게 번창하여 질내에 병을 유발하게 된다. 슬쩍 지나가는 병균들까지 모여들어서 물만난 고기처럼 질속에서 잘 살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뒷물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둘 사항은 바로 질내의 산성도를 알칼리

성으로 바꾸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그저 무심코 일반 비누로 질을 세척하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들은 알칼리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여 질내까지 마구 세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반비누로 샤워를 하는 도중 이라면 여성의 성기부근을 가볍게 씻어주는 정도로 하고, 질내에까지는 비누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약국에서 팔고 있는 일반 질세정제는 질내의 산성도를 고려하여 약산성으로 만든 소독제이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이러한 소독제, 세척제를 사용하면 질내에 있는 인체에 유익한 균들까지 제거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질에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거나, 전문가의 처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번한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뒷물을 하는 과정에서 손은 반드시 앞쪽에서 뒷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항문에서 성기쪽으로 손이 움직인다면 항문부근에 있는 균들이 질에 옮겨와서 질병을 야기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항문과 성기는 따로따로 씻는 것이 좋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모씨는 일종의 성병에 감염되어 남편과 불편한 관계에 놓였었다. 전문의를 찾은 결과 항문과 성기를 동시에 씻으면서 감염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물을 펄펄 끓여 깨끗하게 만들어 하체를 잠시동안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청결한 뒷물이며, 씻고 난 후에는 뽕뽕뽕하게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쁜 경우에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늘 습기가 차고 눅눅한 상태의 여성의 성기는 세균에게 가장 좋은 장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2. 월경중에 성관계는 괜찮은가?

특별하게 건강상이나 위생상 염려할 정도는 아니며, 부부사이에 월경에 대한 선입감이나 불쾌감, 혐오의 기분이 없으면 구태여 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월경이 끝날 무렵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전문의들은 추천한다. 월경개시 직후(1~2일째)나 월경양이 많을 때는 생리통도 여성을 괴롭히지만 성관계를 하게되면 월경양이 더 많아지거나, 또는 자궁내막염(자궁의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는 병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사실상 월중행사를 하고 있는 자궁은 충혈되어있고 자궁내막에는 작은 상처가 많으며 저항력도 평상시보다 약해져 있으므로 난폭하고 불결한 성행위를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다.

홍은정 기자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장 윤 경(본 상담소 홍보실장)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직장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해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지난 여름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명동 거리에서 지나가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없이 했던 질문들이다. 상담소에서 만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 -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에 직장인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한 내용을 담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런 작업을 거쳐 완성된 비디오에 담은 내용은 단지 3명이 출연했고 2분 정도였다. 셀수 없이 많은 이들을 인터뷰한 고생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분량이었다. 그러나 비디오를 인터뷰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

니기에 “저기 대답하는 장면 내가 인터뷰한 거야.”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반면 속상했던 점이 있다면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까봐 도망갈때, 중년의 회사원들이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야.”하고 뿌리칠때, 인터뷰에 응해주더라도 “난 성희롱을 한 적이 없어요.”하면서 마치 성희롱을 피해입은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유지할때였다.

물론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성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특히 비디오에 남는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생활을 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누나, 나의 동생, 나의 친구가 바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견딜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무기력해지고, 일할 권리를 침해 받는 문제로 단지 피해를 입은 여성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게다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패소 판결을 받고 상고심 중이기에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다행히 지난 9월 25일 시사회를 갖고 보급되기 시작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각 직장,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 등 많은 이들이 이 비디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비디오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니 지난 여름 땀을 흘리면서 명동에 있었던 내 모습이 하나도 힘들게 기억되지 않는다. 더불어 바쁜 시간중에 여러가지 질문에 꼼꼼히 진지하게 대답해주던 분들의 모습이 어렵듯이 기억난다. 그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비디오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대 상 : 여상 졸업반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
상영시간 : 30분
가 격 : 1만 8천원
기 획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제 작 : 파나비전
판 매 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 1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2 직접 구입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천원을 포함하여 2만원을 온라인으로 보내 주시면 입금 확인되는대로 등기 우송해 드립니다.

● 온라인 구좌 번호

국민은행 : 009-01-1176-632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념 9가지

산타 크루즈의 폭력에 대항하는 남성들집단 『강간을반대하는 남성들』 편

- ◆ 통념 1 :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다.
- ◆ 사실 : 여성에게 강간당하는 남성들도 간혹 있지만 성인남성의 개입없이 단독 여성에 의해 성적 강요가 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강간당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남성에 의하여 강간당하고 있다.
- ◆ 통념 2 : 미쳤거나 병든 자만이 아이를 성폭행한다.
- ◆ 사실 : 아이를 폭행하(려)는 남성들 대부분은 친구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통한다.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연령이나 몸매를 가진 아이를 찾는 경향이 있다. 어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가령 감옥이나 가정)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많은 남성들이 성폭력의 형태를 빌린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아이를 교묘하게 얼리고 쫓아내어 혼란스럽게 만든다.
- ◆ 통념 3 : 모든 성폭력 가해자는 어린 때 폭행당한 피해자들이었다.
- ◆ 사실 : 성폭력범으로 판결받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과거에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강간당하면 누구든지 이후에 강간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남성지배를 강화하는 폭압적인 사회 속에 사는 모든 남성들이 난폭해질 수 있다. 또한, 성차별주의로 인하여 여성 극복자들(Survivors)보다는 남성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남성을 가해자로 생각하기가 더 쉬운 것 역시 성차별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강간할 운명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어린 시절에 폭행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 ◆ 통념 4 : 감옥에서 행해지는 강간은 범죄에 대한 일종의 형벌이다.
- ◆ 사실 : 인간은 누구든 강간당하지 말아야 할 인격체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8백만의 남성들이 감옥에 가게 된다. 감옥에서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당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사회로 복귀한다. 이는 곧, 강간이나 매춘을 「일상적으로」 강요하는 「하위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옥 안에서 발생하는 강간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 ◆ 통념 5 : 남성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잘 대처한다
- ◆ 사실 : 성폭력 피해자들은 좌절감과 방향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장기적이든 단기적으로 거친다. 그들은 그 경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여긴다. 또, 마치 자신에게 다소 혐의가 있는 듯이, 아니면 가해를 유발한듯이 생각하여 자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전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많이 혹은 적게 먹거나 잔다. 남성을 두려워하거나 문제의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복수를 꿈꾸기도 한다. 또는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다.

- ◆ 통념 6 : 대부분 성폭력은 정말은 성적 유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소년들이 성을 배운다.
- ◆ 사실 : 강압이나 위협, 속임수를 써서 아이에게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연령을 불문하고, 가해자가 무의식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권력관계를 악용한 것이든 성폭력이다. 부모는 소년들이 성폭력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 여성은 만년 어린소녀이지만 남성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성인남성으로서 대접받는다. 소년은 보다 자기독립적이고 활발하도록 기대된다. 성폭력에 의한 손상도 덜 심각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성적으로 수치스러움을 겪었거나 모욕을 당한 경험은 그 소년의 전 인격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
- ◆ 통념 7 : 남성은 여성보다 자기방어를 더 잘 할 수 있다.
- ◆ 사실 : 소년들은 남성이 되라는 교육을 받으며 남성은 자기방어를 하도록 교육받는다. 하지만 실제 자신들이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거의 모르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집단강간피해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쉽다. 또한 더 심하게 구타당하며 여러 타입의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다.
- ◆ 통념 8 : 동성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은 “잘못표출된 동성애”이다.
- ◆ 사실 : 남성이 같은 남성에게 강간을 했을 때 그것을 단지 「동성애가 잘못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강간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의 성적인 선호나 기호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누가 저지르건 누구에게 일어나건 강간은 분명 성폭력이다.
- ◆ 통념 9 : 동성애자인 남성은 강간당하기를 좋아한다.
- ◆ 사실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고 압력에 의해 행해질 때라면 쾌락을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세상은 남녀 동성애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애정표현을 일종의 죄악으로 인식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남성 동성애자 역시 공정한 대우와 위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사연구부

편집자 주
미국에서는 성폭력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각 지역 별로 체계화되어 있다. 산타 크루즈 지역의 「강간을 반대하는 남성들」 모임을 위시하여 어린이 성학대 치료 프로그램내 「부모들 모임」, 「청소년 피해자 모임」, 「어린이 피해자 모임」, 「성인 여성 피해자 모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상병과 성희롱

김태영(자유기고가)

“야 뉴스 들어봐라! 저런거 맨날 보면 뭐하냐?”
 어느 저녁때처럼 내무반에선 TV 쇼프로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처럼 무슨 무슨 모델이니, 무슨 무슨 탤런트니 하는 여자 연예인이 나온다고 하는 날이면 제대를 눈 앞에 둔 고참이고 아직 까마득하게 군생활이 남은 신병이고 가릴 것 없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TV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김상병은 언제나 그런 그들이 못마땅 했지만 (계급이 웬수라고!!!) 언제나 그런 우리들 속엔 고참이 한둘은 꼭 끼어있게 마련이어서 보고 싶은 뉴스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휴가다 외박이다 해서 고참들이 없어서 오랜만에 뉴스를 보기로 작정을 한 것이다.
 “아니 김상병님 이런 끝내주는 프로를 놔두고 뉴스가 됩니까?”
 물론 순순히 채널을 돌리지 않으리란건 예상을 했지만 첫말부터 영 곱지가 않다. 김상병과 두달 차이가 나는 이상병을 필두로 해서 각자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선다.
 “김상병님, 오늘 특집입니다, 특집! 이런 기회는 일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야! 니들이 고참되면 그런거 보고, 지금은 뉴스 봐! 야 막내야, 뉴스 들어.”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은 가장 고참인 김상병의 뜻대로 채널은 뉴스프로로 고정되었고, 그 끝내주는 프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몇몇은 다른 내무반으로 원정을 가고 이도 저도 귀찮은 몇몇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야 저거야 당연히 무죄지, 무죄!”
 뉴스 말미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보도될 때 이도 저도 귀찮아 누워 있던 이상병이 던진 말이 김상병은 영 못마땅했다.
 “야 임마 저게 왜 무죄냐?”
 “아니 김상병님은 그럼 저게 유죄란 말입니까? 아니 교수가 손으로 어깨 좀 스친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것도 교수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껴안은 자세가 된게 무슨 죄가 됩니까?”
 채널 선택권을 박탈당한 억울함을 만회해보려는 듯 이상병은 따지듯이 대들었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 당사자가 거부하게 느끼고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야.”
 “김상병님은 참 답답하십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을 그냥 콧...”
 이상병은 자기가 재판을 받기라고 하는 양 흥분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죄가 될 게 뭐가 있냐? 모르고 그랬고, 할 수 없이 그랬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 성폭행이나 강간도 그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했다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 면죄가 되냐?”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김상병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남자끼리 이해를 못합니까?”
 “야 이건 남자와 여자고의 문제가 아니야. 왜 너도 겪어봤잖아!”
 “예?”
 “너 이등병때 박병장이 너 이쁘게 생겼다고 맨날 쓰다듬고 만지고 한 적 있지? 그때 너 기분 좋데? 그리고 박병장이 부대 고참으로 존경스럽데?”
 “참 김상병님도 괜히 와서 일방적으로 만지고 쓰다듬고 하는데 제가 호모도 아니고 호모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러는데 기분이 좋을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박병장 싫어한건 김상병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왜 싫다고, 하지말라고 하지 가만히 있었니?”
 “그거야 뭐. 그때 박병장이 부대 왕고였는데 심사 건드리면 군생활 팍팍 꼬일게 분명한데 어떻게 얘기해요.”
 “거봐 너도 시인하잖아”
 “예? 제가 뭐 시인해요?”
 “이상병 네 이야길 풀자면, 왕고 눈에 벗어나서 좋을게 없으니 싫었지만 참을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거야 그렇죠.”
 “그때 네가 김병장보다 계급이 높거나 같았다더라면 김병장이 너한테 그랬겠냐? 또 그랬다치더라도 네가 가만히 있었겠냐?”
 “어휴, 김상병님도 그때 계급만 같았으면, 아니 제가 상병만 됐더라도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강간이나 성폭행도 똑같아. 대부분의 강간이나 성폭행이 그냥 야밤에 야한 여자를 성욕이 강한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이나 지위, 경제적 관계에서 일어나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박병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처럼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억울하게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게다가 법에 호소한다는 것은 더욱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럼 김상병님 얘기는 성폭력이 단순한 남자들의 호기심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한거라기보다는 권력이나, 지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생긴다는 겁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꼭 우조고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볼 때에는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왜 그랬는가?’ 등의 이유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김상병님 얘길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남자인 저도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거구요. 쯤. 성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렵네요.”
 “그래. 그래도 그 쉽지 않은걸 계속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가는거고 이상병 너 같은 사람이 하나씩 들쭉 늘어가면, 언젠가는 그 쉽지 않은 일이 아주 쉽고 당연한 일이 되겠지.”

대중음악과 사랑

신 현 준(대중문화평론가)

한국의 대중음악이 「사랑타령 일색」이라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50
 년 동안 음악적 형식은 시대별로 변천을
 거듭해 왔어도 음악의 주제는 변함없이 남녀

간의 사랑이 주류
 를 이루어 왔다.
 최근 들어 가사의
 소재를 확장하려
 는 몇몇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대중음악
 의 전반적 혁신으
 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미흡해 보인
 다.

그런데 대중음
 악이 사랑과 성을
 소재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아

야 할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소재가 어떻
 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신세대 가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청소년 대
 중음악의 주류였던 발라드는 남녀간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노래한다. 그때의 사랑은 매우 추상
 적으로 이상화되어 있고, 노래 속에 등장하는
 남성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한다. 그는 때로는
 여주인공을 허구적으로 미화하고, 때로는 이별
 의 아픔을 곱씹는 존재이다. “너는 장미보다 아
 름답진 않지만 /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신승
 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전자의 예라면,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
 야 하는가”(김중서, 「대답없는 너」)는 후자의
 예이다.

발라드곡에 묘사된 남성은 유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인 반
 면 여성은 그의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
 이다. 그러다 보니 여
 성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는 어떠
 한 대안도 박탈당한
 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라고 남성이 바라는
 이유는 “내 맘 아프
 지 않(게)”(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기 위해서이다. 강자의
 책임감 때문
 인가... 이런 성차별
 이테올로기는 여가수
 에게 투사되기도 한
 다. “행복해야 해 /

년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 / 다시 사랑을 하고
 / 저 기억 너머로 그렇게 나를 잊어야 해(이소
 라, 「난 행복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보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신세대 가요는 어떠한가? “떠난 사람을 계속
 그리면서 눈물 흐르지만 행복 빌어준대 / 천사
 표가 요즘 어디있나”(Ref, 「이별공식」)는 가사
 는 적어도 이전과 같은 낭만적 허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제 여성은 이전보다 더욱 탐미적
 인 시선 하에 두어진다. “똥똥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 우와 재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
 아”(DJ Doc, 「머피의 법칙」)라는 식의 가사는
 성적 매력의 측면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의 전형이다. 이상화된 낭만이 감각적 쾌락으
 로 대체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가질 수
 없는 너”라는 노래 제목에서 보듯, 여성은 「솔
 직하게」소유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그대가 나
 와 결혼을 해 준다면 / 나는 그대의 노예가 되
 어도 좋아”(박진영, 「청혼가」)라는 최근의 인
 기가요는 아마도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사랑의 대상)와 최신의 이미지(소유의 대상)
 를 묘하게 결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대중음악의 효과는 남성성과 여성성
 을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켜서 남성지배의 현
 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가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할 자리는 아니다.
 단지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들을 남자와 여자
 라는 고정된 섹슈얼리티로 재단하지는 않았으
 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대중음악
 의 측면에서 이러한 바람은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지만 이러한 바람을 허망하게 만드는 공윤의
 「사전심의제도」가 엄존하고 있는 우리의 우울
 한 현실이란...



“네,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희 상담소에서는 심리적 상담과 의료적 지원,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니 안심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개소 4주년을 맞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적은 인원,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상담전문기관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은 상근자 선생님들과 더불어 160여명에 달하는 자원활동가들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이다.

나눔터 15, 16호에서 소개한 상담원, 나눔이와 함께 상담

소 자원활동가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지·김·이 1993년 12월, 48시간 이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위기센터가 생겨나면서 처음 등장한 지킴이는 1995년 11월 현재 4기 지킴이까지 모두 107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킴이들의 주활동은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에서 1차 상담을 담당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당황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거나 응급처

치를 요할때, 고소를 원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어 당황할때 지킴이들은 전화를 통하여 현재 있는 곳, 안전성, 심리적 상태, 의료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의료, 법률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 또는 상담원과의 지속적인 상담연계 등의 작업을 한다.

대학생이 주축이라 상담소 구성원 중 가장 젊고 활기찬 신세대 지킴이는 그 젊음에 걸맞게 다양한 활동으로써 상담소에 늘 신선한 기운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지킴이들은 위기센터 활동 외에도 자체적인 조직과 소모임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 창조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매달 상담사례 역할극, 심리상담, 의료적 처치, 성폭력특별법, 어린이 성폭력 상담 등의 주제를 정하고 학습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나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킴이들의 자체 소모임으로는 영화모임 「디스파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볼링모임 「뽕데굴」, 자타가 공인하는 ‘카수’들이 모인 「노래도적」,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고소사건들의 법정지원, 사례분석 등을 통해 상담시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법정지원모임」 등이 있다. 또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정기 월례회에서는 위기센터 실장과 아간간사, 지킴이들이 모여 한달 동안의 지킴이 활동을 보고하고 상담사례 발표, 질문 등을 통해 해이해지기 쉬운 자원활동가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킴이들은 상담소에, 그리고 이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보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한다. 오늘도 이들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씩씩하게 위기센터의 밤을 지키고 있다.

정금나 기자

지킴이편

위기센터 우리에게 맡겨라!



월례회의를 마치고



개소 4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연하는 「노래도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후원회원

고진숙, 구연이, 김광삼, 김남순, 김만집, 김명순, 김명신, 김미현, 김보라, 김선준, 김선희, 김 영, 김영애, 김영화, 김유임, 김윤아, 김윤옥, 김은미, 김은숙, 김진태, 김춘근, 김효섭, 김효성, 모아의료양행, 문창배, 민건식, 민영순, 박근숙, 박길호, 박선희, 박영자, 박청자, 박춘화, 배경숙, 변성미, 변숙자, 서정희, 송강은, 신기련, 신대회, 신성균, 신숙진, 신순애, 신정자, 신진경, 양수범, 오정애, 원영일, 유국영, 윤남희, 윤혜순, 이경희, 이명옥, 이배석, 이병관, 이소형, 이숙향,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유희, 이윤미, 이은애, 이정숙, 이지영, 이진수, 임미영, 장명숙, 전정희, 정미정, 정옥희, 정종옥, 정진옥, 정호근, 조경애, 조덕희, 조동순, 조정임, 조혜성, 주세진, 주정남, 최순희, 최옥란, 최재철, 하성아, 한진희, 홍순기, 홍승영, 황소영

새로운 나눔터 회원

강지원, 경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유소영, 이재혁

기부금 내주신 분

박금자, 장순란, 정옥희, 정화순, 최재철

도서기증해주신분

임순영 - 성, 권력, 정치 (법문사)

성폭력 피해여성 기금마련 공연
[열린마음, 열린세상] 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폭력피해여성 기금마련 공연의 한 장면

기부금 내주신 분

강부자, 김동순, 손명순, 이윤성, 이한동, 이희호, 주양자, 차재능, 한경대

행사광고 후원해 주신분

맥스전자, 남양유업, 유한킴벌리, 레베카, 길병원
 박금자 산부인과, 부띠끄 올가, 서울치과병원, 정동철 의원,
 공증인가 창조 법무법인, 주리아 화장품, 한숲스포츠센터

본 상담소의 심볼 유는 '여성들의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볼인 유는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볼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나눔터

1995. 12 / 제 17 호

펴낸 날 일천구백구십오년 12월 25일

펴낸 곳 한국 성폭력 상담소

펴낸 이 최영애

만든 이 김병준 김인주 산정미 연민이 김지연 이성제
 이수지 이진상 장윤경 정금나 최유아 홍은정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상담활동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데 큰 뜻을 둔 단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모든 상담활동,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활동, 소식지·교육자료·연구물 간행 등의 홍보출판 활동, 사례분석·실태조사·자료의 연구·수집 등의 조사연구 활동, 나라 인권의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상담원 활동과 나눔이 지킴이 활동, 후원회원, 나눔터 회원, 기증 등의 방법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작은 실천과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사

강기원 민병진 박금자 오세민 윤장순 이종걸 정동철
 최영애 추애주

감사

배지하/세무사 차재능/회계사

자문위원

상담

기독교학/서광선 사회학/장영복 심리학/박애선·이창호·
 조해자·이혜성 아동학/장연집 여성학/한정자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김삼화·박찬운·
 신기남·이명숙·이상경·이종걸·이항아·임종인·
 장재호·장철우·정갑생·조영환·황산성

의료

가정의학/김중구 법의학/강신용 권일훈·문국진·서중석·
 이경룡·이윤성·이원대·최영식·황적준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남소자·문영규·민응기·박경자·박금자·박소현·
 박양실·박종민·안영옥·윤경·이경희·이길녀·이옥주·
 임용택·한중수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곽영숙·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정일·남정현·소은희·
 양창순·윤애리·이나미·정동철·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해란·이재숙

연구

교육학/김인수 사회학/김준호 성형외·조형 여성학/이재경·
 장필화·조순경·조주현 인류학/장영호 철학/이상화·정대현
 통계학/이동재

홍보·출판

동시통역/김지영 사회/박진숙 시사만평가/최정현
 신문방송학/김영숙·최선열 언론인/김철기·전어욱·조성숙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구인/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

재정

고석주 김미주 김우혜 문선경 민병진 박영희 윤장순 최조자 추애주
 대표이사 ● 박금자
 소 장 ● 최영애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사무전화 02-576-7128, 575-0980

팩시밀리 02-576-7127